4-28-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1-7 말씀 제목: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하늘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 더럽힌 마귀를 제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계 21:3-4)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마귀가 온 세상에 죄를 가져와서 더럽혀 놓은 죄악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범한 죄들을 위해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 피흘리게 하여 그들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그들의 육체로 지은 죄들만을 용서받고 그들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히 9:13).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만이 그들 양심 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깨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천 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휴거 후에 세상에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 환란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들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언했습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 3:7)

대 환란의 때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으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땅을 떠난 후이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하여: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하더라."(계 20:4)

대 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심판하여 불 못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계 19:20)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마귀를 붙잡아서 천 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봉인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 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계 20:1-3)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의 수가 마치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을 잠시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추리시기 위하여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은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의 삼켜 버리더라."(계 20:9)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말씀하신대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죄로 더럽혔던 마귀를 마침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계 20:10)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양심에 따라 살았던 지난 모든 사람들의 혼들을 일어나게 하시어 그들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큰 백보좌 심판을 하시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불못에 던져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계 20:11-14)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창조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계 21:5-7)

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사탄과 사람의 죄로 인해 지금까지도 썩어짐과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롬 8:19-21) 아멘! 할렐루야!